청소년들 지역 정책 발굴 머리 맞댄다

순천시, 청소년참여 프로젝트 추진
8월 청소년정책박람회도 개최 예정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순천 개랭이고들빼기마을에서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에코캠핑이 열렸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청소년들이 지역의 정책을 직접 발굴·기획하는 청소년참여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성가족부의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으며 '푸름(靑)을 풀어놓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시는 순천시교육지원청과 협업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코캠핑, 인싸그램, Water Pop, 마을 드로잉 등 청소년기획단 운영과 정책캠프를 거쳐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정책박람회·정책 리페어 페스티벌 등 정책수립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해 추진한다.

특히 제한적 소수가 아닌 일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고,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다수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 14~15일 순천개랭이고들빼기 마을에서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에코캠핑을 운영하면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치며 해양쓰레기 감량과 깨끗한 바다환경에 대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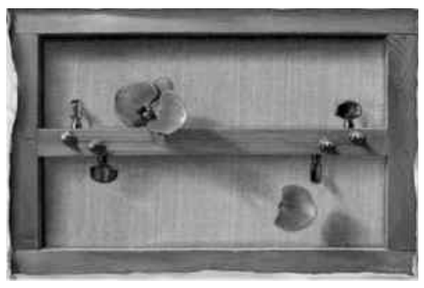
이후에도 1기당 30명씩 총4기 100여명의 청소년기획단을 운영해 각 기수별 1개의 주제로 정책발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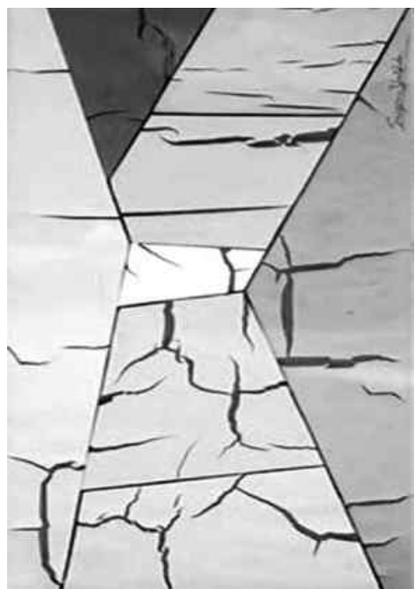
순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 내 청년문화기획단체가 추진해 청년과 청소년의 유대관계를 통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풀어가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질문과 함께 하는 QNQ활동과 캠프, 박람회를 경험하며 역량이 강화되고 변화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순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2022년 순천시 청소년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정책제안서 전시, 온·오프라인 정책심사와 투표, 시상, 청소년 공연 및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전남 작가·日 작가 작품 한자리서 본다

곡성-홋카이도 국제교류전
다음달 22일까지 곡성갤러리


안태영 작 '봄을 기다리는 노래'


시게루 요시다 작 'Various life'

전남지역 작가들과 일본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전남 곡성-홋카이도 국제교류전'이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곡성군 갤러리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동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일본화, 도예 등 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현대 미술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에는 전남과 홋카이도 작가 총 39명이 참여한다. 전남 지역 작가로는 강동권·김효삼·정지윤·박희석·안태영·장용훈 등 20명이 참여해 수묵화, 서양화, 조소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홋카이도에서는 홋카이도 문화재단 부이사장인 텐에이 아베를 비롯해 타다야키 후지이, 히로코 카토 등 1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교류전을 통해 국제적인 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특히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곡성을 찾는 방문객들께 '문화곡성'을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갤러리107은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07-1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휴관 없이 운영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광양 성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순조

다목적체육관은 8월
수영장 10월 임시 개관

성황스포츠센터 조감도.

광양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 수영장)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광양시는 성황 근린공원에 총사업비는 544억원(다목적체육관 326억원·수영장 218억원)을 투입해 2개 동 연면적 2만3897㎡(다목적체육관 지상 4층 1만7991㎡·수영장 지상 2층 5906㎡) 규모로 스포츠센터를 건축하고 있다.

다목적체육관은 올해 8월·수영장은 10월 임시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목적체육관 1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8면, 탁구 전용구장 10면, 스쿼시장 3면, 에어로빅장, 요가장 등 체육시설과 세미나실, 다목적실, 문화교실 2개소 등을 갖추고 있다.

수영장은 50m 10레인의 경영풀과 유아풀 등 부대시설을 구비한다.

다목적체육관은 건축공사를 5월 말까지 끝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축과 실내 인테리어 보강, 녹색건축물 및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본인증 취득 등 시민 누구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시설물 보강과 운영프로그램을 정비해 8월 임시 개관할 예정이다.

성황스포츠센터가 개관되면 시민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시민이 즐겨 찾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광양시 대표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훈 광양시 체육과장은 "성황스포츠센터가 문화, 예술, 관광처럼 시민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생활체육 공간이 되도록 준공과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 무료급식지원 경로식당 3년만에 정상 운영

코로나 19로 문을 닫았던 구례군 무료급식지원 경로식당이 3년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구례군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60세 이상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구례읍 무료급식지원 경로식당을 3년여만에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로식당은 2016년부터 복권기금사업으로 운영됐으며 매년 120명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사진〉 지하 1층 식당에서 매주 주3회(월·수·금요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로식당은 2020년 갑작스러운 수해 피해와 코로나 19로 인해 문을 닫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수해복구가 완료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점심식사로 제공하게 됐다.

군은 직영으로 운영하던 경로식당을 구례군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위탁운영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경로식당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로식당 위탁운영자인 구례지역자활센터 양철승 센터장은 "경로식당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장소이기도하지만 외로움을 달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더욱 의미가 큰 사업인만큼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여수 '꿈뜨락 옷장' 호응

연 3회 1주일간 빌려줘

여수시가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꿈뜨락 옷장'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중앙시장 2층 꿈뜨락몰 내에 위치한 '꿈뜨락 옷장'은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 3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1회 대여 시 1주일간 대여할 수 있다. 사전 연습을 위한 AI면접도 무료로 진행한다.

이용 방법은 '여수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꿈뜨락 옷장을 방문해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옷을 선택하면 된다. 단 옷장 방문 시 여수시 거주 또는 관내 대학 재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와 면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 청년은 "면접을 앞두고 정장을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꿈뜨락 옷장에서 안성맞춤인 정장을 빌릴 수 있었다"며 "덕분에 면접을 잘 치르고 합격까지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꿈뜨락 옷장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계절별, 사이즈별 다양한 정장을 구비해 편의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꿈을 응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